



## 창간사

학술위원장 윤 경 일

한약전문가 집단인 우리 대한 한약협회가 한약 학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대한한약」 지를 창간한다. 학술지 성격의 이 회지는 우선 한약전문가로서 그 소임을 보다 충실히 하고저 하는 한약인 스스로의 알찬 학술정보매체가 될 것이다. 「한약」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오래 동안에 걸쳐 난조를 이루는 동안 우리 단체마저 학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쉬운 지난날에 비추어 늦게나마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가지는 이와같은 회지의 발간은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한약을 전업으로 하는 우리는 오랜 실무를 통하여 특히 많은 경험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한약발전과 관계하여 누구에게서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런 중요자산은 사장이 될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학문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이를 스스로 거를 필요가 있다. 임상, 연구, 논의, 자료화, 결집, 체계화가 그것이다. 「대한한약」이 바로 이러한 뜻을 담게된다.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들의 한약학술에 대한 애정과 그와 같은 정려가 소중하게 담길 것이다. 정부가 한약인의 사라져가는 귀중한 경험방을 채록 하고저 우리에게 그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도 다름 아니다. 의학의 발전이나 그 가치 활용을 위하여 작은 자료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작은 자기의 이해상관에 따라 한약학이 한의학의 부수나, 양약학의 부수인 생약학에 역강 부회 되어 오는 동안 그 교육면에서 한갓 한약재료학의 대접만큼도 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순은 이제 새로운 제도로서 끝이 났다. 모든 학문이 일정교육기관에서 꽃을 피워 내듯 한약학도 우리의 주장대로 하나의 전문분야 학술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교육되어질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인적 중요 자원으로써 나름의 자료를 하나라도 더 다듬어 보태야 한다. 한약업사 시대에서 한약사시대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들의 책무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자주 문화형성과 함께 의약분야에서도 향약(鄕藥)으로 상징되는 자립기반을 다져왔다. 중국으로 부터 한방을 도입하지만 이것을 즐기게 여과하면서 점점 우리민족의약체계를 정립시켜 온 것이다. 「향약집성방」 「의방류취」와 「동의보감」 및 「주촌신방」들에 이른 정리, 그리고 사상의방과 같은 독창적 사고의 도출이 바로 그것이다. 불행히도 학문의 근대적 발전을 기할 중요한 신문명기에 우리는 이민족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주춤거리게 되며 이런 잘못된 제도는 정부가 수립되면서도 그 발전적 체계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에 휘말리게 된다. 모든 학문이 과학적체계로 분과화 내지 전문화되어 더욱 발전을 서두를 때 한약의 학문은 오직 쭈구러든 기술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동의보감」도 이미 400년이나 되는 16세기에 정리된 하나의 고전자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중국 일본 이라든가 또한 무엇이나 뒤졌다고 하는 북한의 한방자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새로운 진취적인 생각을 얻어 내는 데서만 이를 타개하게 된다. 보감도 그때에만 위대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가 학자나 문장가는 아니지만 임상가로서 임상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 가치의 재확인이라든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함이 없이 3,000에 이르는 전문가가 기록으로 정리하여 가치화한다면 그만큼 큰 결과에 이르게 된다. 회지가 성실히 그 하나 하나를 담아 낼때 마침내 제2의 새로운 보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겠다. 서로 격려하며 부지런히 동참할 일이다. 학술위원회는 학술지 및 논문집 발간등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며 회원의 저술작업도 힘써 도울 것이다.

새벽빛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단지 어두움을 거두는 데에만 있지 않다. 장차 탐스런 열매로 영글어 놓을 장엄한 태양의 역사라는 점에서 더 크게 찾아진다. 「대한한약」이 새벽빛으로 출발한다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낼 열매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 믿어야 하겠다.

1997. 4. 20